"청춘의 정체성 찾기 코믹하게 그렸죠"

영화 '청년경찰' 김주환 감독

박서준·강하늘과 놀면서 친해져

리딩 없이 즉흥 연기로 영화 맛 살려

블록버스터 전쟁터인 여름 성수기 극장가에 한국영화 '청년경찰'이 8월 9일 도전장을 내민다.

혈기왕성하고 정의감 넘치는 두 경찰대생이 우연히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 코믹액션영화다.

총제작비는 70억원 안팎. '군함도'(260억원), '택시운전사'(150억원)가 헤비급이면 '청년경찰'은 라이트급 축에 속한다. 이 때문에 올여름 극장가의 최약체로 꼽혔으나 최근 시사회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웃음과 감동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31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주환(36) 감독은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경찰대생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관한 존재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일종의 성장영화"라고 말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지만,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경찰대생 기준(박서준 분)과 이론은 해박한데 '허당끼'있는 희열(강하늘), 두 사람이 티격태격 빚어내는 콤비 플레이가 시종일관 유쾌한 웃음을 끌어낸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둘의 우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과 처음 만났을 때 대사 호흡 등을 맞춰보는 '리딩'도 하지 않았죠. 대신에 함께 PC방에 가서 게임도 하고, 커피숍에서 수다도 떨면서 놀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다 보니 두 배우는 저절로 친해졌고, 촬영 현장에서 다양한 즉흥 대사를 선보이며 영화의 맛을 더 살릴 수 있었다.

김 감독은 박서준에 대해 "리더 또는 장남 스타일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배우"라고 평했고, 강하늘에 대해선 "타인을 많이 존중해주는 심성이 착한 배우"라고 치켜세웠다.

이 영화는 코믹 요소가 많지만 그렇다고 마냥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가벼운 영화만은 아니다.

김 감독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코미디 영화로 시나리오를 쓴 것은 아니다"면서 "웃음을 끌어내려면 영웅에 대한 과업, 소명에 대한 무게감이 있어야 하므로 범죄 부분은 무겁게 그렸다"고 설명했다. 또 시나리오를 쓰는 동안 발생한 '그 사건'을 간접적으로라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청년경찰'이 장편 상업영화 데뷔작인 김 감독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어려서 만화 그리기를 좋아했던 김 감독은 디즈니 입사 등을 꿈꾸며 중학교 2학년 때 홀로 뉴질랜드로 유학길에 올랐다. 이어 고등학교 1학 때 미국으로 건너가 동부 뉴햄프셔주의 사립고교를 졸업하고, 명문 조지타운대에서 외교정치학을 전공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공군 통역장교로 40개월 복무했다. 복무 중에는 쿠웨이트로 파병을 다녀오기도 했다.

언뜻 보면 전형적인 '엄친아'로, 여기까지는 영화감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듯 보인다.

그러나 마음속에 창작자로서의 꿈과 열정을 키워온 그는 제대 후 2008년 국내 투자배급사 쇼박스에 공채로 입사해 6년간 홍보와 투자 업무를 담당했다. 그곳에서의 실무 경험은 관객을 배려할 줄 아는 시나리오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줬다.

오는 8월 2일 개봉하는 쇼박스 투자·배급 영화 '택시운전사'의 엔딩크레디트에는 김 감독의 이름이 해외 캐스팅 디렉터로 올라있다. 과거 쇼박스와의 인연으로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을 섭외하는 일을 그가 맡았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 회사를 그만둔 그는 3년간 '청년경찰' 시나리오에만 매달렸고, 이번에 첫 작품을 내놓을 수 있었다.

"중2 때 뉴질랜드로 유학 갔을 때 20㎏짜리 여행 가방을 혼자 들지도 못해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래도 열정 하나로 살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 다니면서도 힘들었지만, 항상 시나리오를 썼죠. 저는 요즘 청년들에게 결국 세상을 구하는 것은 열정인 만큼, 열정을 잃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김 감독은 '청년경찰'이 흥행에 성공하면 박서준·강하늘 콤비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 참여한 스태프와 다시 한 번 손잡고 '청년경찰2'를 찍고 싶다며 웃었다. /연합뉴스

"상투적 첩보원 이미지 탈피하고 싶어"

영화 '브이아이피' 국정원 요원 役 장동건

영화 '브이아이피'에서 국정원 첩보원 역으로 출연하는 장동건은 "상투적인 첩보원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었다"고 31일 밝혔다.

그는 이날 CGV압구정에서 열린 '브이아이피'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신선한 시나리오와 박훈정 감독에 대한 믿음으로 출연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달 24일 개봉하는 '브이아이피'는 국정원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기획으로 북에서 온 VIP가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그를 쫓는 대한민국 특별수사팀과 북한에서 넘어온 비밀공작원, CIA, 국정원 등이 얽히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 '신세계'를 만든 박훈정 감독의 신작이다.

장동건은 영화에서 VIP의 존재를 은폐하려는 국정원 요원 박재혁 역을 맡았다.

그는 "시나리오의 스토리가 재미있었고 네 배우가 계주 하면서 바통 터치하는 느낌으로 끌고 가는 구성도 신선했다"며 "박훈정 감독에 대한 믿음으로 작품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느낌, 임무에 충실한 충직한 회사원의 느낌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귀순한 VIP 김광일 역은 배우 이종석이 맡아 처음으로 악역에 도전한다.

그는 "처음으로 악역을 맡은 만큼 촬영에 들어가기 전 여러 영화를 보고 공부를 했다"며 "표정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기존의 연쇄살인범 캐릭터와 반대로 최대한 힘을 빼고 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장동건, 이종석과 함께 김명민이 VIP 김광일을 뒤쫓는 경찰 채이도 역을, 박희순이 북한에서 내려온 보안성 소속의 공작원 리대범 역을 각각 맡았다. /연합뉴스

한국방송대상 대상에 '임진왜란 1592'

올해 한국방송대상에 KBS의 '임진왜란 1592' 5부작이 뽑혔다.

한국방송협회는 심사위원단 24명이 선정한 제44회 한국방송대상 대상과 작품상 23개 부문 24편, 개인상 21명을 31일 발표했다.

방송협회는 "임진왜란 1592 5부작은 국내에서는 본격화되지 않은 다큐멘터리의 한 장르인 '팩츄얼드라마'(factual drama) 형식을 과감히 도입해 동아시아 최초이자 최대 국제 전쟁인 임진왜란을 철저한 고증과 스펙터클한 영상미로 재조명한 작품"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작품상은 ▲ 시사보도TV부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의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진실' ▲ 다큐멘터리TV부문 MBC '휴먼다큐 사랑'의 '나의 이름은 신성혁' 2부작 ▲ 중단편드라마부문 KBS수목미니시리즈 '김과장' ▲ 예능버라이어티부문 MBC '무한도전'의 '역사X힙합 프로젝트 위대한 유산' ▲ 연예오락TV부문 SBS '미운 우리 새끼' 등이 선정됐다.

개인상은 ▲ 공로상 '배우 고 김영애', '운군일 PD' ▲ 지역방송진흥상 박원달(TBC) ▲ 기술진흥상 정화섭(KBS) ▲ 영상그래픽상 정현규(MBC) ▲ 아나운서상 이상희(OBS) ▲ 진행자상 한동준(CBS) ▲ 작가상 〈그것이 알고싶다〉 작가진(SBS) ▲ 연기자상 남궁민 등이 뽑혔다.

올해 시상식은 방송의 날에 맞춰 오는 9월 4일 KBS홀에서 개최되고 KBS1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스페셜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트아시아 스페셜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0 1 대 100(재)	30 시청자 TV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학교 2017(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한국인의 밥상(재)	05 생생정보 스페셜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55 닥터 365
2	40 톡쏘는 인터뷰 소다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15 텔레몬스터 25 수빈 스토리 2 55 별별며느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감성툰 고맙습니다(재) 05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00 MBC 뉴스M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조작(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 7 35 리얼토크, 날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1 대 100	55 별별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여름특집 KBS대기획 디렉터스컷 한국사기 55 숨터	00 학교 2017	00 왕은 사랑한다	00 조작
11	00 KBS 뉴스라인 40 UHD 특집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읽어주면 좋고 아니면 냄비받침	10 MBC 100분 토론	10 불타는 청춘
12	30 여름기획 독립영화관 〈범죄의 여왕〉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45 오빠생각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미국 자동차 횡단 7500km -두 카우보이, 남부에 빠지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이디 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성난 물고기(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찹스테이크와 퀴노아 샐러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메디컬 다큐-7요일(재)
13:40 장수의 비밀(재)
14:30 레이디버그
15:00 요술 상자
15:05 내 친구 아서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시계마을 티키톡!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두다다쿵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호기심나라 오키도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너티너츠
19:30 EBS뉴스
19:55 극한직업 〈서해안 꽃게 잡이〉
20:50 세계테마기행 〈언제나 영화처럼, 캄보디아 -웰컴 투 몬돌키리〉
21:30 한국기행 〈얼려라,여름 2부 이 맛을 알아?〉
21:50 EBS 다큐프라임 〈호랑이의 땅 2부 타이가의 호랑이 그리고 공존〉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3:35 메디컬 다큐 - 7요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외〉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한국영화특선 〈고고70〉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일(음 6월 10일 庚申)

子 48년생 행운을 이끄는 길성이 비추고 있다. 60년생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72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84년생 대마루판이 될 것이니 최선을 다 하여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43, 41

丑 49년생 의욕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겠다. 61년생 취약한 곳이 보이니 속히 보완하자. 73년생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아야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85년생 탄력이 붙었을 때를 놓치지 말고 집중적으로 추진하자. 행운의 숫자 : 97, 03

寅 50년생 본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대국의 조성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 62년생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게 된다. 74년생 이유 불문하고 함께해야 할 판도에 놓여 있느니라. 86년생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71, 86

卯 51년생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63년생 폭 넓은 안목이 길징의 형세로 이끌 것이다. 75년생 부단한 정진 속에서 혜안이 떠오를 것이다. 87년생 충분한 분석과 고찰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99

辰 52년생 지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64년생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무리하지 않음이 옳다. 76년생 관계나 체면을 의식한다면 걸림돌이 된다. 88년생 상대하기 힘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84

巳 53년생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지금 내색할 필요는 없다. 65년생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77년생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펼쳐질 것이다. 89년생 첫 술에 배부르랴? 행운의 숫자 : 63, 21

午 42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산적이다. 54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고 있다. 66년생 혁신적인 방안을 도모해야 할 때다. 78년생 준비하다가 시간 다 가겠다. 90년생 대중 잡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행운의 숫자 : 90, 55

未 43년생 직접 처리하라. 55년생 일관된다면 대원성취 할 수 있느니라. 67년생 무리하게 끌어올리려 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9년생 소모적이므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91년생 시간적 여유가 꼭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41, 68

申 44년생 시세와 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56년생 소임은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느니라. 68년생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수긍하게 될 것이다. 80년생 세분화할수록 이롭다. 행운의 숫자 : 23, 59

酉 45년생 시각적으로 쉽게 현혹될 수도 있느니라. 57년생 썩 좋은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 69년생 겉모습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세밀하게 캐보아야 할 일이다. 81년생 장담한다면 자승자박하는 꼴이 된다. 행운의 숫자 : 15, 20

戌 46년생 경사스런 일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다. 58년생 욕심대로 될 일은 아니니 절대로 집착할 필요는 없다. 70년생 기존의 형태가 끝없이 반복되는 정황일 뿐이다. 82년생 기법이 가치를 드높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4, 40

亥 47년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느니라. 59년생 미연에 조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71년생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 83년생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45, 6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